

싱싱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SING
SING
PROJECT



싱싱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SING
SING
PROJECT

심성프로젝트 결과자료집

CONTENTS

“나, 돌아갈래!”

엄마, 아내, 남편, 아빠,
누구의 그 무엇이 아닌

온전한 나를 찾는
특별한 시간

01 사업개요

06 문화예술교육사

07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07 추진절차

02 심성프로젝트

11 심성프로젝트

12 나에게 보내는 노래

28 내 마음 드로잉

03 후기

40 참여자 만족도

44 참여자 후기

50 강사 후기

04 별첨

58 문화예술교육사 후기

01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며 이를 국가제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전국 문화시설 94개소
94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천지역 7개소 7명 선발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실무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
육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문화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활용도 및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 공개채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워크샵 및 연수 진행
- 기관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보조
- <싱싱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02

문화예술교육사 기획 프로그램

심심 프로젝트



02

싱싱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사 기획 프로그램

싱싱 프로젝트

-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50+세대가 잊고 있었던 '나'를 찾아 삶의 생기를 되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 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 단순 기능 습득교육이 아닌 자아성찰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삶의 가치를 재탐색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1 - 나에게 보내는 노래

대상	50세 이상
강사	주강사2명, 보조강사2명
교육기간	2021.8.27 - 2021. 9.24 매주 금 10:00 - 12:00 총5회차
교육목표	음악을 통해 삶을 회고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프로그램 2 - 내 마음 드로잉

대상	50세 이상
강사	주강사2명
교육기간	2021.10.1 - 2021.10.29 매주 금 10:00 - 12:00 총 5회차
교육목표	내면 드로잉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수업을 비대면 전환 및 원활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 진행

나에게 보내는 노래

인생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만들어보는 구성

프로그램1

장르

강사

교육회차

일시

참여인원

|

|

|

|

|

|

나에게 보내는 노래

음악

채수진, 송민경, 문지은(악기연주), 함푸른(음원작업)

총 5차시

2021. 08. 27 ~ 09. 24 매주 금 10:00 - 12:00

15명

생애전환기의 참여자가 음악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담은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격상함에 따라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고 소리를 들으며 작곡하는 과정을, 악기 연주자를 섭외해 강사진이 음계를 들려주며 참여자와 소통하여 작곡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진행하였다.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곡을 만들어가며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모든 참여자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음원을 완성하였다.

교육 꾸러미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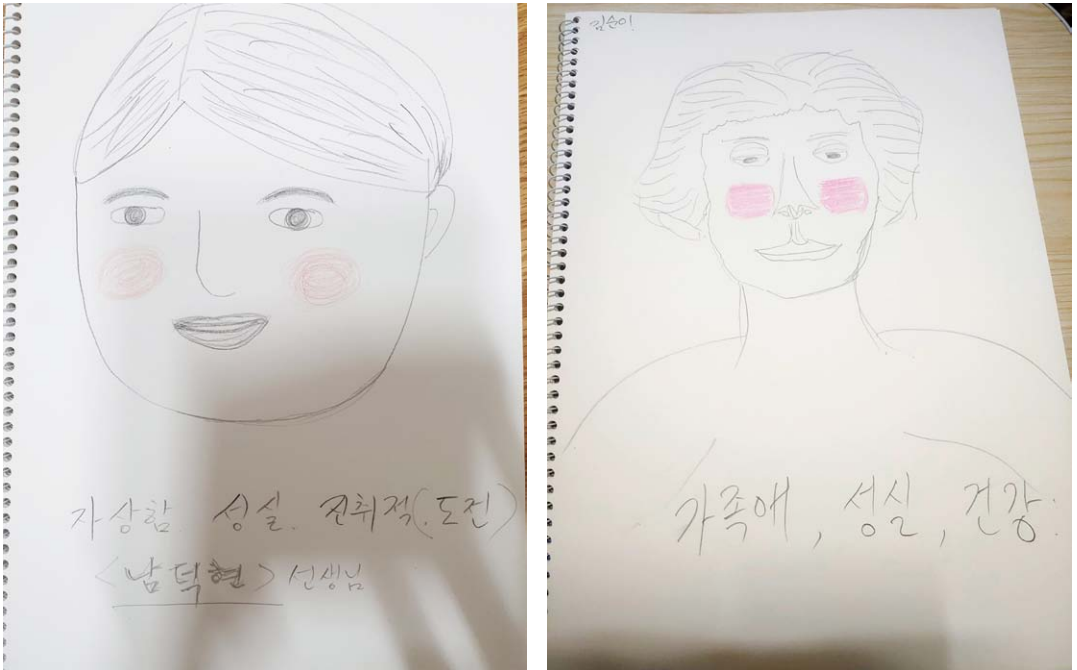
회차	주제	세부내용
1	수업소개, 친밀감 형성	• 내 일상 속 음악요소 탐색 • 일상을 주제로 만들어진 음악 감상 • 노래 창작을 위한 악보그리기 워밍업 : 그래픽 노테이션
2	모두의 인생음악	• 그 때, 그 음악: 내 음악 소개 및 내 이야기 공유 • ‘나에게 보내는 노래’ 타임라인 작성
3	나에게 보내는 노래 1. 가사 만들기	• ‘나에게 보내는 노래’ 타임라인 발표 • ‘나에게 보내는 노래’ 가사 제작 • 코드진행의 예시, 리듬패턴의 예시 탐구 • 내 노래에 적용할 진행 및 패턴 결정
4	나에게 보내는 노래 2. 음악 만들기	• 가사, 음악의 매치 • 내가 제작한 음악, 녹음파일 제작
5	완성곡 감상	• 음악 소개 및 감상

1차시

주제	수업소개 및 자기소개, 표현, 창작
목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개개인의 예술표현방식으로 소통한다.
내용	1) 두 명씩 소회의 그룹으로 흩어져 서로를 소개하고 화면 속 파트너의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스케치한다. 2) 전체 회의실에 다시 모여 자신의 파트너를 소개한다. 3) 작곡은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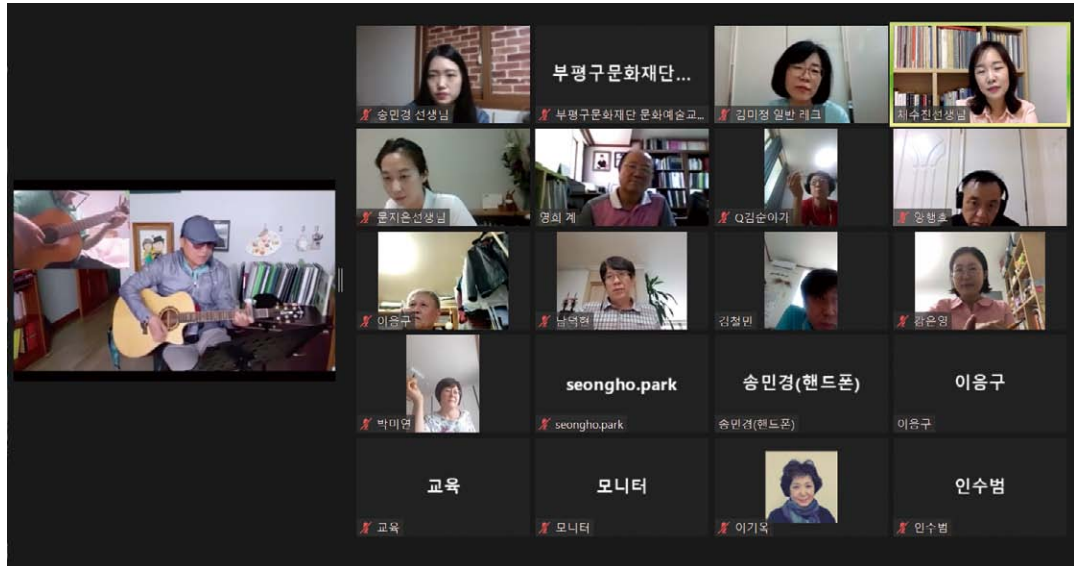


두명씩 짝을 지어 탐색하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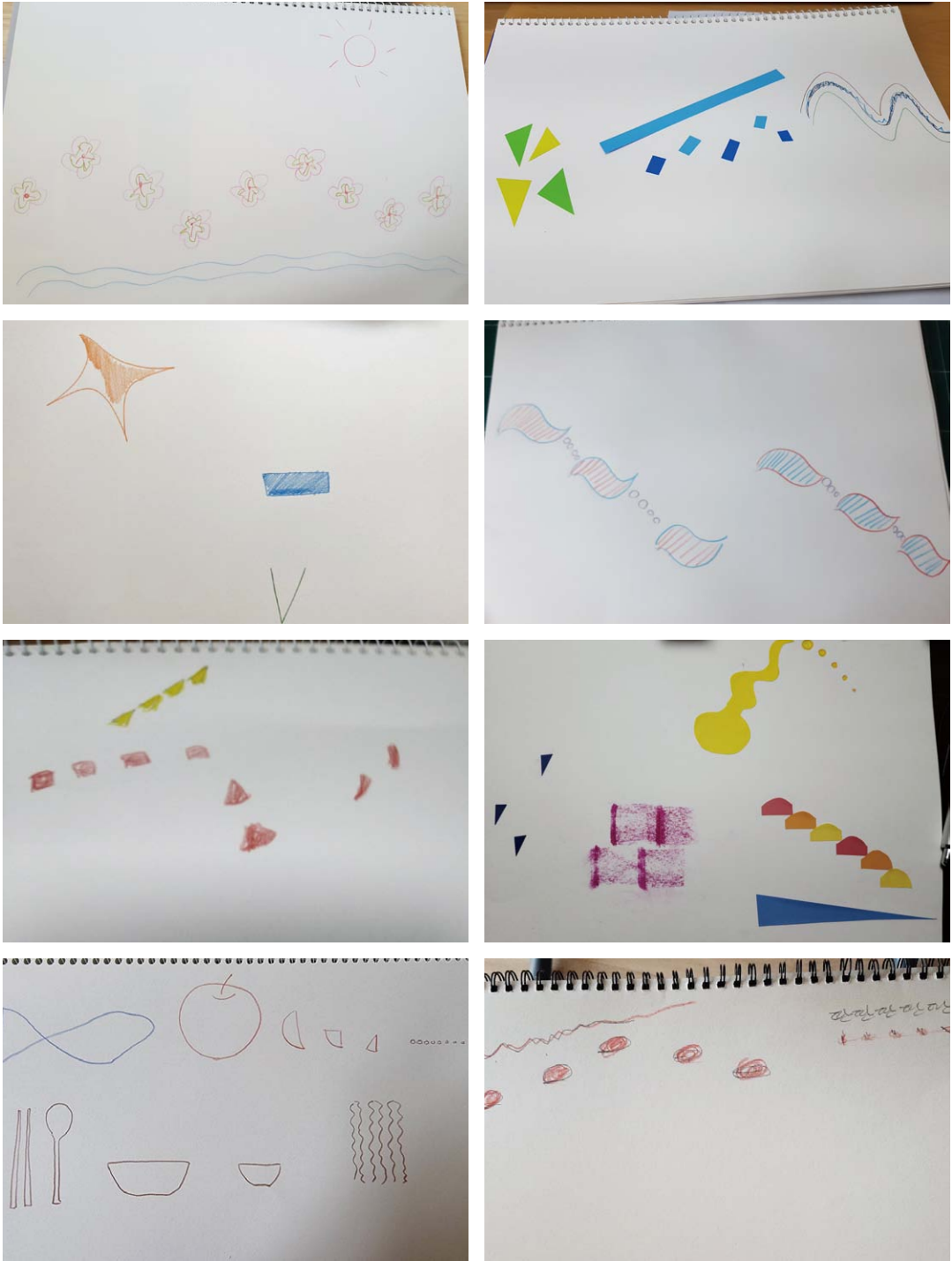


2차시

주제	모두의 인생음악 - '그 때, 그 음악' 소개하기
목표	그래픽 노테이션 활동을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 악보를 그려보고, 나의 인생음악을 소개하며 감상해본다.
내용	1) 머릿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스케치북 위에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악보를 그려보고, 강사들의 즉흥연주로 음악을 들어본다. 2) 각자의 인생음악을 소개하고 감상해본다.



멜로디를 그래픽으로 표현해보기



나의 인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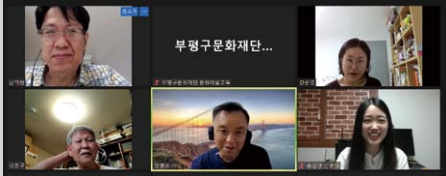
인생곡	선정 이유
에스터데이-비틀즈	어린 시절 영어는 몰라도 흥혈흥혈 불렀고, 장기 자랑에서 불렀던 곡이라 기억에 남는다.
아름다운 사람	중학교 때 인상 깊게 들었던 곡.
단발머리-조용필	행복한 사춘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쭈뼛이 서고 너무나 행복했었던 단발머리 그 시절이 아련해진다.
그중에그대를만나-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네. 하루 이재. 운명이 아니면 채울 수 없소.
나 가거든-조수미	죽음을 의식하며 살자. 현재에 집중하자. 자아실현하고 인류에 도움 주자.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당시에 합창단에 들어가고자 오디션곡인 '내 맘의 강물'을 연습하고자 오밤중에 산에 가서 짹짹 질러댔던 생각이 납니다.
백조(동물의 사육제 13곡) -생상스 작곡	나 젊을 때 만난 백조! 그 잔잔함이 내게 편안함 되었네 인생 반 넘은 지금도 백조는 내겐 평강!
영화 신상(神象) 주제곡 -'키쇼르 쿠마르 (Kishore Kumar)'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 입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던 날, 이 음악을 듣고 나서부터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곡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옛친구-김세환	친한 친구 공항서 떠나보내고 나오던 노래 내 마음과 같아 한참을 울다 왔던 기억..
망부석-김태곤	노래의 첫 부분에 꿩과리 등장, 시원 쪽쪽 뺏어 나가는 것이 시원. 노래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를 때 더 낫다고 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가졌다.

3차시

주제	'나에게 보내는 노래' 가사 만들기
목표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주제로 조별로 음악을 만드는 초반작업에 돌입한다.
내용	1) 두 조로 나뉘어 각 조의 노래형식, 장르, 가사형식을 논의한다. 2) 화성의 느낌을 각자의 느낌, 뉘앙스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별 작사 작업

A조



어두운 내 마음 외롭고 추위도
복을 두드리며 먹고 즐기자
당신의 가슴 속 작은 배를 띄우고
파도와 싸우며 거슬러오르리
내 마음 부풀어올라 어깨춤추네
바쁘다며 일찍 가고 아프다고 먼저
가네 하나둘씩 떠나가네
내일은 좋은 사람 옆에 있었으면
꿈속에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오늘은 힘들어도 구출될 수 있는
희망의 끈 놓지 않고 구출되고나면 추억이 된다.
(후렴)
노래는 나의 행복 노래는 나의 미래
나는 어쩌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선율에 몸을 실어 발걸음도 경쾌하게
내딛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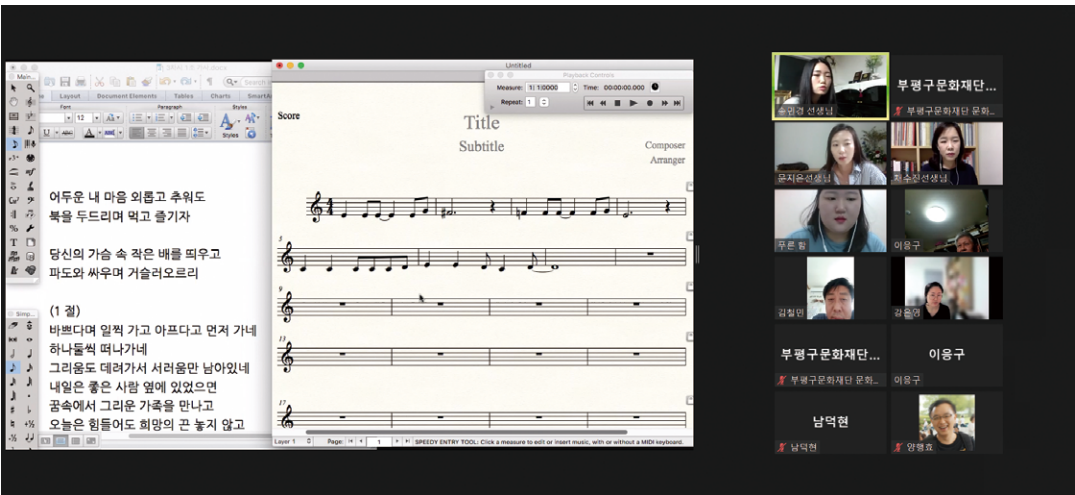
B조



친구
도입 : 양갈래로 예쁘게 땀은 머리.
뿔뿔망망한 눈동자가 떠올라.
칼 같은 교복 바지 주름
머쓱한 너의 미소 아직도 떠올라.
전개 : 너를 만날때 난 설레여.
너가 아플때 내 가슴도 미어져.
낮선 풍경, 신기한 거리
그 거리가 생생하게 떠올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이라도
마무리: 너와 함께 간다면 웃으며 갈 수 있어
용길내서 너의 손을 잡고싶어
네 앞엔 항상 내가 있어
지금 이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말자

4차시

주제	'나에게 보내는 노래' 음악 만들기
목표	지난 차시에 만든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완성한다.
내용	1) 발라드, 트로트, 펑크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진 가이드음원을 들어 보고 '나에게 보내는 노래'에 어울리는 장르를 선정한다. 2) 지난 차시에 만든 가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서 완성하고 해당 가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다함께 의견을 모아 멜로디를 붙인다.



5차시

주제	완성된 음악 감상 및 참여소감 나누기
목표	다함께 작곡한 '나에게 보내는 노래'의 가이드음원을 감상하고, 노래에 어울리는 앨범표지 이미지를 직접 그려본다.
내용	1)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작곡한 '나에게 보내는 노래'의 완성 버전을 가이드음원으로 들어본 후 노래를 익힌다. 2) 노래를 들으며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앨범표지를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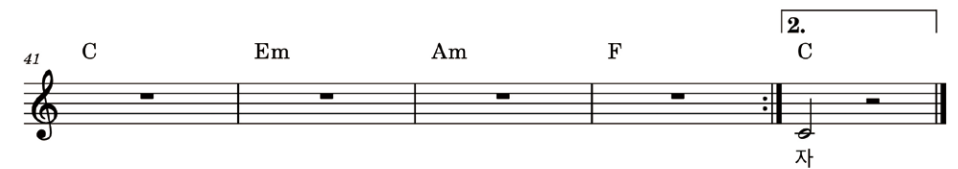
앨범표지 그리기





작사·작곡 : 김미정, 윤춘숙, 이기옥, 인수범
도움 : 함푸른, 채수진, 송민경, 문지은, 전 참여자

싱싱프로젝트 - 친구





작사·작곡 : 강은영, 남덕현, 양행효, 이용구
도움 : 송민경, 채수진, 문지은, 함푸른, 전 참여자

싱싱 프로젝트 - 나에게 보내는 노래

1 C E Am F G

5 C D G7 C /B

9 Am D9/F# G

13 A D/A A/C# Dm7

17 F F#dim7 G Gsus4

21 C E Am F /G

25 C E Am F /G

29 C Dm7 F C

33 C Dm7 F G

37 1. F Em7 Dm C F Em7 Dm G

41 F Em7 Dm C F Em7 Dm G

46 C Em7 F G

♪ 모든 음원은 '부평구문화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드로잉

내면을 들여다보며 드로잉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으로 구성

프로그램1 | 내 마음 드로잉

장르 | 드로잉

강사 | 초선영, 박정은

교육회차 | 총 5차시

일시 | 2021. 10. 01. ~ 10. 29 매주 금 10:00 - 12:00

참여인원 | 13명

생애전환기의 참여자가 미술적 요소를 활용해 자신을 탐색하고, 나아가 ‘너, 나, 우리’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참여자 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도록 기획했다. 코로나19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수업 전 참여자들의 비디오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여 원활한 소통의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차시별 교육 꾸러미와 안내문을 통해 보다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교육 꾸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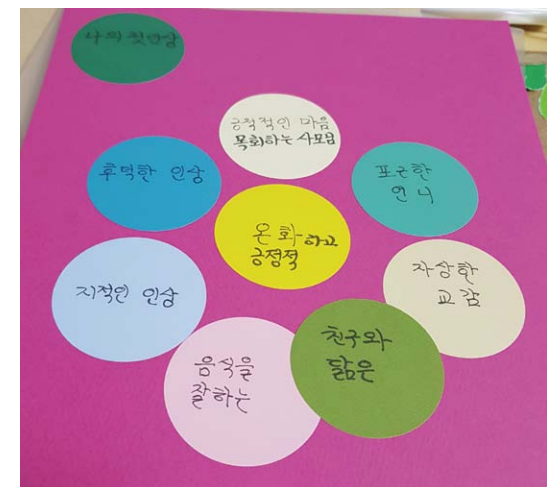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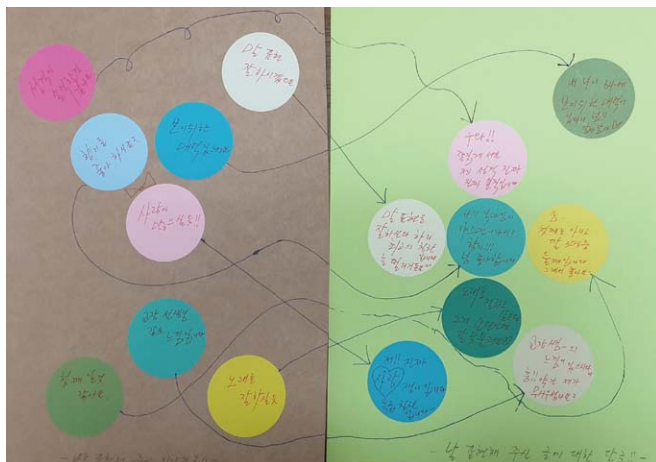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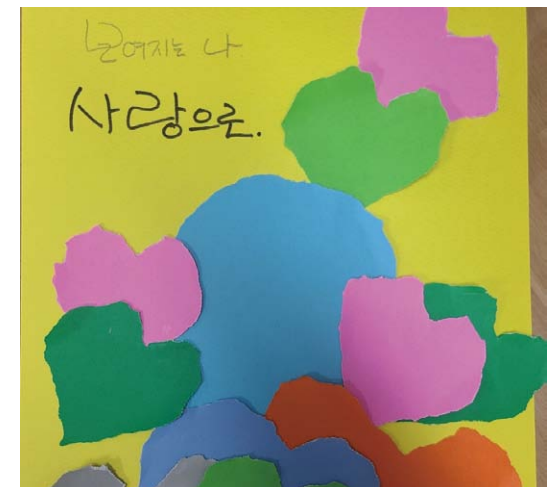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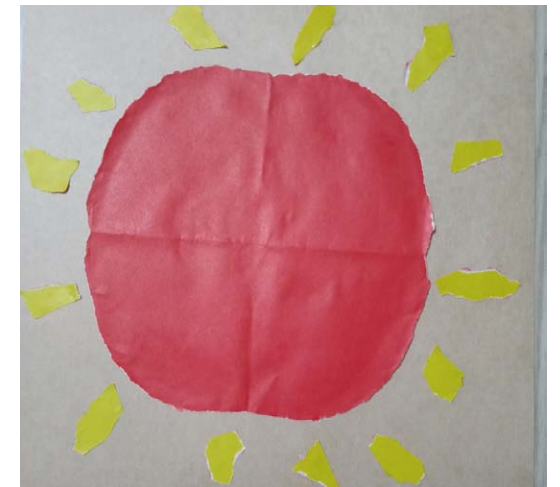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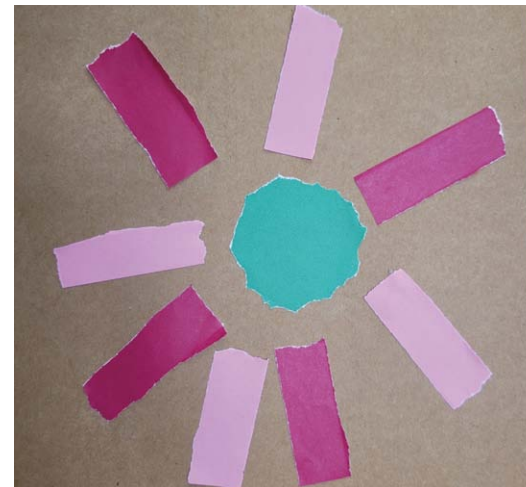
세부 내용

회차	주제/키워드	프로그램 세부내용
1	드러난 나	- 그림카드를 통해 자기소개하기 - 첫인상 알아보기 - 외적인 나에 대한 내면초상화 그리기
2	숨어있는 나	- 첫인상 반박, 수용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 - 분류하며 숨어있는 나 찾기
3	타인 속의 나	- 내 주변인 중 나와 결이 같은 사람 찾기 - 타인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며 내면초상화 그리기
4	고정된 나	- 가장 어릴 적 기억 이야기하기 -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여 그리기
5	변화하는 나	- 미래의 나로부터의 편지 - 산 모양으로 목표 그리기 -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내면초상화 그리기

1차시

주제	드러난 나
목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하고 드러난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	1) 내면초상화 예시를 보며 앞으로 진행될 수업을 알아본다 2) 나와 닮은 꽃그림을 골라 비유하여 자기소개하고, 불리고 싶은 이름을 정한다. 3) 외적인 부분으로 비추어 보는 서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드러난 나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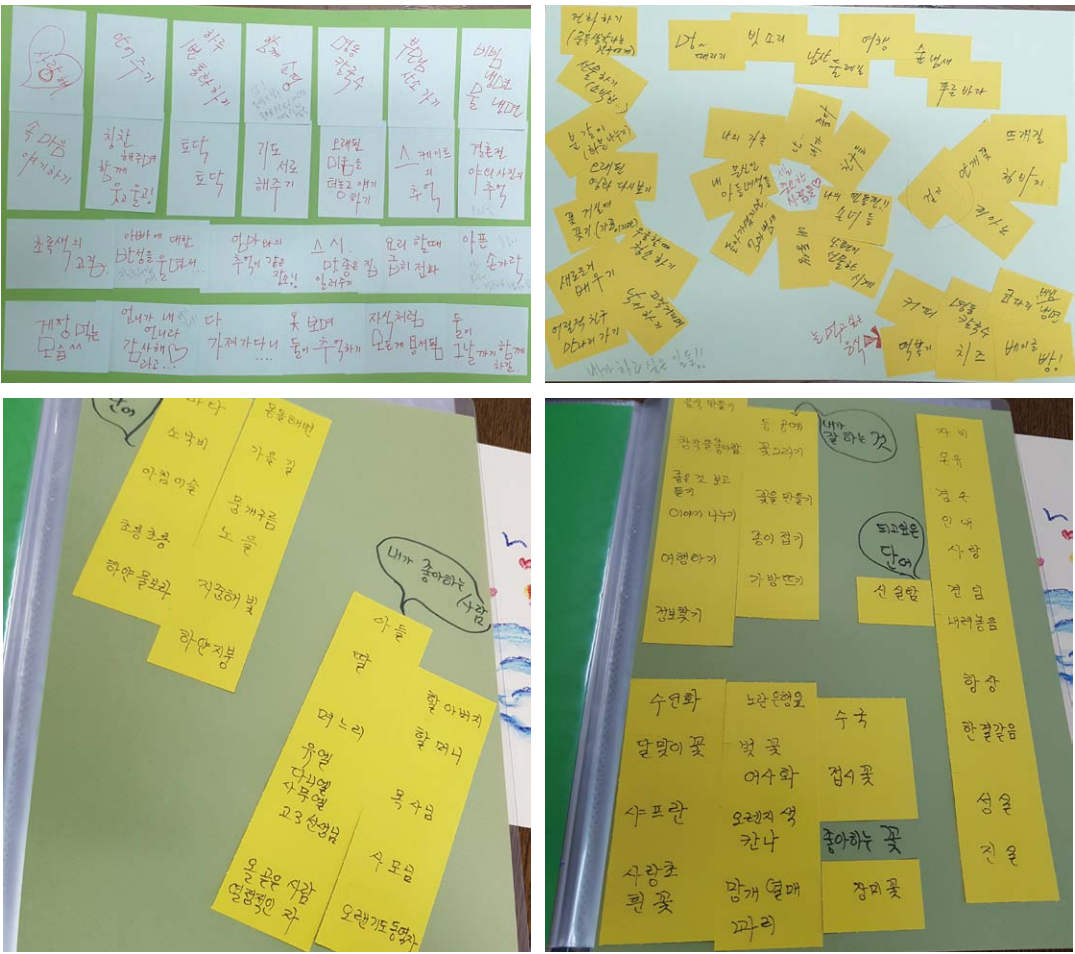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를 표현해보기



2차시

주제	숨어있는 나
목표	분류를 통해 숨어있는 나를 찾아본다.
내용	1) 지난 시간에 모은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실제 나와 비교해보고 이야기한다. 2) 좋아하는 것들을 작성하고 분류해본다. 3) 분류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숨어있는 나를 찾는다.

숨어있는 나 찾기



3차시

주제	타인 속의 나
목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알아본다.
내용	1) 내 주변의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적어본다. 2) 적은 것을 바탕으로 타인 속의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관계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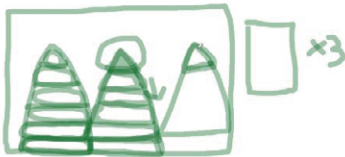
나와 타인 사이에 있는것 그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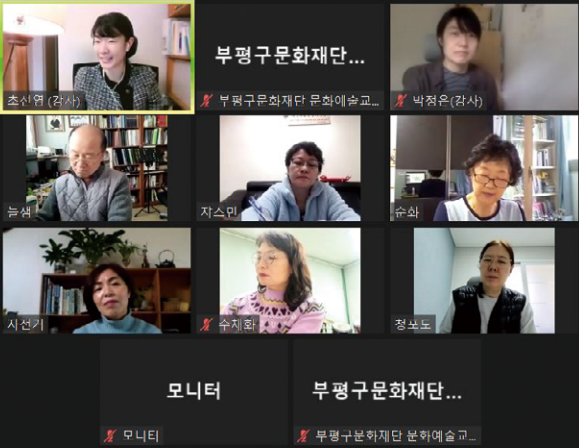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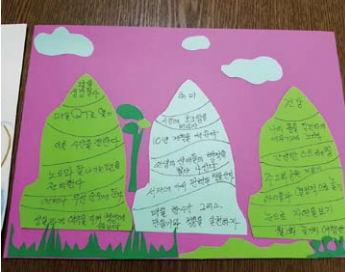
5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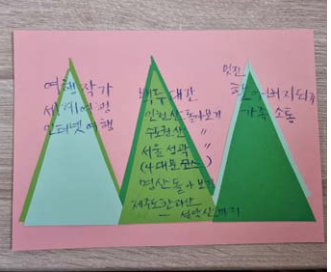
주제	변화하는 나
목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찾아본다.
내용	1) 내가 원하는 모습을 명사, 형용사로 작성하고, 무작위 배치하여 나오는 문장에 맞는 그림을 실을 활용하여 그려본다. 2) 산모양으로 목표를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실천 가능한 것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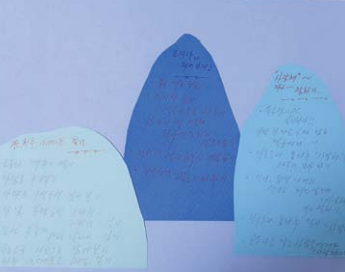
목표 산 적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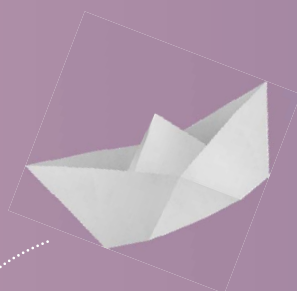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실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03

싱싱프로젝트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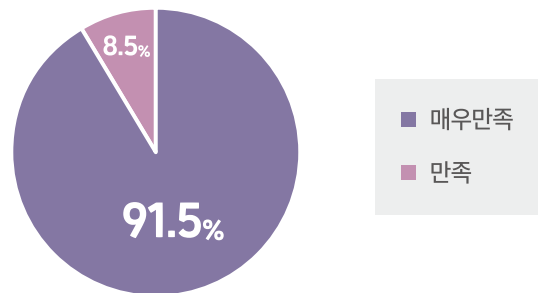


01 참여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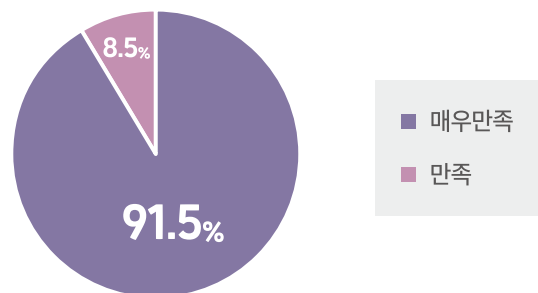
교육과정평가

조사 대상자 : 상상프로젝트 전 참여자
 참여자 : 28명
 만족도조사 응답자 :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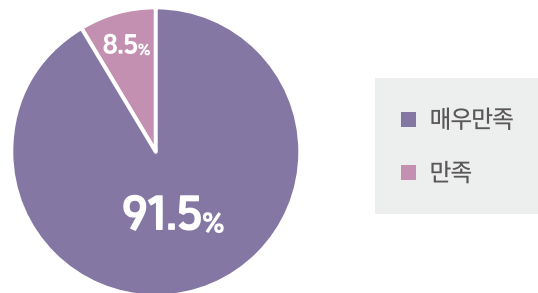
1. 교육이 학습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2. 교육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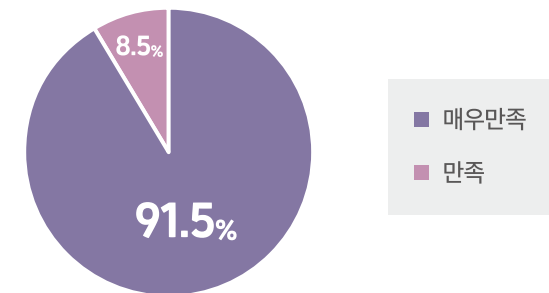


3. 교육 회차 및 시간이 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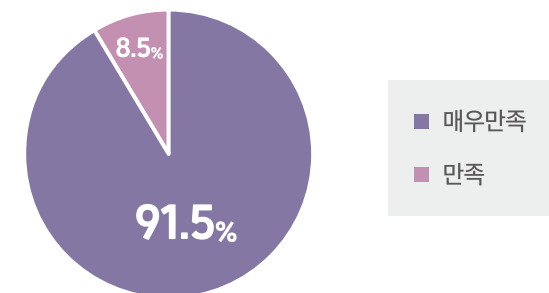


강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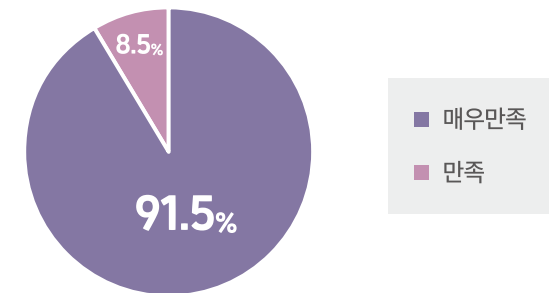
1. 교육이 학습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2. 교육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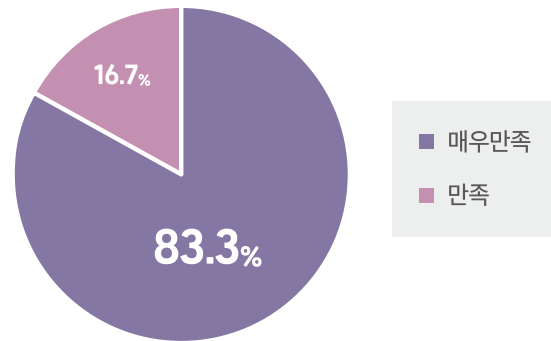


3. 교육 회차 및 시간이 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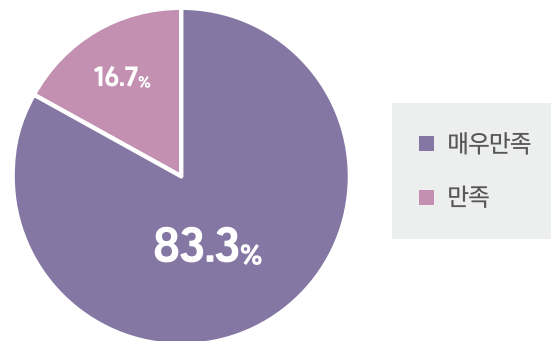


재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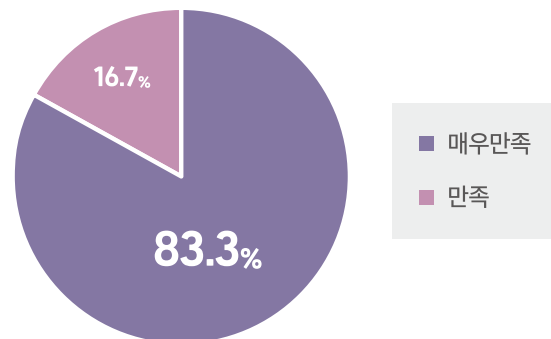
1. 직원은 일정, 특이사항 등을 세밀하게 안내했다



2. 직원의 응대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3. 온라인 교육 운영이 쉽고 편리했다



02 참여자 후기

나에게 보내는 노래

김철민

노래 수업을 처음 들어보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래 수업을 많이 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작곡 작사같이 참여해서 하니까 재밌고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김순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응구

노래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강은영

다섯 번의 과정 다 참여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다른 참여자분들의 다양성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서 의미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참여자들끼리 연결되어 음악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완성된 노래의 간주가 땡하고 나오는 순간에 너무 좋았어요. 또, 예술은 몸 안에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여자분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각자의 생각에서 나온 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신기했어요. 곡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수업에 빠져) 가사 쓰는 작업만 했는데도 곡이 나와서 고마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김미정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었는데 이 프로그램하면서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참여 못한 날은 많이 아쉬웠어요. 어항 속 물고기가 바다에 풀어지듯 남은 인생도 웁아매지 말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혼자보다 여럿이 이렇게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걸 느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인수범

음악 작사 작곡하는 과정에 대해 많이 배웠고 즐거웠고 그 과정에서 그림 그린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5주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드로잉

안젤라

좋은 분들과 활기찬 강사님 덕분에 4주간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전거

모두 처음 뵈는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나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느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사
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덕분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
상이구나를 느꼈고, 이런 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
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께 많은 것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채화

마지막 시간이라 아쉬워요. 선생님께서 마음을 열고 표현할 수 있게 진행
해 주셔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마음을 많이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미술 작업이 낯설지만 낯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또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진행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수업 참여
못하고 참관만 했던 적이 있는데, 바라만 볼 땐 한 분 한 분 다 예술가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스민

이 수업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나이 땐
그런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옛날엔 엄청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내가 나이 들어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
요.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사는 이야기도 재미
있고, 보람 있었습니다.거듭될수록 재미있고 고마웠습니다.제가 인천에
친구가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한 번도 못 뵈었지만
꼭 만나고 싶습니다.너무 보람됐고 감사했습니다.

가을하늘

심상 프로젝트라서 강의를 통해서 마인드를 바뀌가는 프로그램으로 생각
했습니다. 하다 보니 표현하는 게 생각으로도 하지만, 그림과, 글로도 마인
드를 바꿔갈 수 있고, 제목처럼 심상해지는 걸 찾아갈 수 있구나를 느꼈습
니다. 같이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개성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 같아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지까지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
습니다.

청포도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소극적이라 표현 잘 못했는데,이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다른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신감 가지고 살겠습니다.

늘샘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 짧게 진행되고 뭔가를 하고, 배우는 것을 원했는데 수업이 이야기하고 계속 듣고 하는 형식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적응 못할까 봐 안 할까 했는데, 인생 이야기하는 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리드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참석해야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부분이 어려운 사람인데 이번에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곳에서도 배려하고 느긋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순화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난 뭘 좋아했지? 싫어했지?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내가 어떤 걸 생각하며 가고 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또박또박 사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도 바쁘고 분주한데, 강의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잘 들어드려야겠고, 깊이를 알고 집중을 해서 이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듣고 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데,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이런 흥분된 감정도 오래간만이라 감사했고 너무 좋았어요. 육신이 어차피 연약해지니까 다들 아프지 말고, 힘내시고 잘 드시고, 건강 위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십정동에 사는데, 언젠가 길거리에서 만날 것 같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선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3 강사 후기

나에게 보내는 노래

누구나에게 사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사회는 가족, 학교, 직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사회는 그 안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 모두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책임감, 의무감으로 삶의 긴 시간을 쏟아낸다. 그 긴 시간이 끝에 다다를 즈음, 돌보지 못해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를 발견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만으로는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 속에 있음에도 사회에서 분리시켜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동물로써 균형을 맞춰나가고 ‘나를 찾아가는 것’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번 ‘싱싱 프로젝트_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음악을 매개로 참여자들 모두가 ‘나를 발견하는 나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교육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며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50+세대의 참여자분들이 ‘나’를 돌아보고 안아주고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랐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 추억 속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냈고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함께 웃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눈물짓기도 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음악이 창작되었다. 음악이 주축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야기로 나의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예술을 구축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진하게 새겨졌길 바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 한 분께서 형제분들을 그리워하시며 작곡하신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음악에는 말로 미처 표현 못 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서 가슴 한켠이 뭉클했었다. 다양한 예술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발견하는 작업들이 참여자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사 채수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껏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된 싱싱프로젝트 또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싱싱프로젝트 ‘나에게 보내는 노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노래 만들기 수업’이라는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게 되었다. 강사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신중하게 수업을 계획했지만 화면 하나를 거쳐 공간 너머의 참여자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안에 노래를 창작해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역시였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역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상황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간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완성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하나의 노래 제목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노래를 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완성해낸 것이 분명하다. 이제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50+’세대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들의 ‘인생음악’과 거기에 얹힌 사연들도 들어보았으며, 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생철학이 담긴 스토리들이 가사로 엮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였지만 오히려 삶을 대하는 신중년 세대의 다양한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작곡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서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노래를 한 음 한 음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나 자신에게 노래를 보내는 즐거움을 듬뿍 느꼈기를 바란다. 또한 완성된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어쩔 이리 소중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느끼며 ‘선물에 몸을 실어 발걸음 경쾌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후반부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강사 송민경

기대하며 기다리던 부평문화재단의 싱싱 프로젝트가 코로나19의 확산 세에 결국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바뀐 상황에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과연 재미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불안했다.

그러나 첫 수업시간 이후로 나의 그 걱정과 고민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듯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나보다 더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셨고, 모두 서로 처음 본 사이였지만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헤어졌던 친척을 만난 것처럼 처음 자기소개 시간에 수업 진행을 위해 말을 끊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야기보따리를 쏟아내셨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 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살면서 한번쯤은 꿈꾸어 봤을 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잘 알지 못해도, 악보를 그리지 못해도 노래를 작곡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평소에 내가 흥얼거리던 콧노래가 멜로디가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가 가사가 되어 나의 인생 곡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함께 경험했다.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강사로 참여했던 나에게도 놀라운 시간들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완성된 “나에게 보내는 노래” 가사내용처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노래로 인해 행복하고 음악 선율에 몸을 싣고 발걸음 경쾌하게 앞으로 달려 나가실 그분들의 미래를 응원해본다.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 속에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 서로를 칭찬하며 웃음 지었던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멋지게 살아가실 싱싱 프로젝트 참여자 선생님들, 정말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강사 문지은

교육가로서의 나의 시작이자 첫걸음 [싱싱프로젝트-나에게 보내는 노래]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마음, 따듯한 마음이 든다. 먼저 같이 진행하면서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맛있는 점심이라도 먹으며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 “맛점하세요^^” 라는 문구를 통하여 점심 식사를 하기 전, 허기진 배를 달래보았다..! (실제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맛점하였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어른 교육생 분들도 작은 화면 속에서 만나게 되니 아쉬움이 굉장했다. 완성된 노래의 가사처럼 만나서 복도 두드리고 흥겹게 노래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편으론 수업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가득했지만 새롭게 제시되는 방향 또한 색다르고 신비로웠고 재밌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육생 분들이 나에게, 내가 교육생 분들에게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이 느껴졌다. 그것을 나는 ‘깨달음’이라 정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그런 나이대의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는 좀처럼 잘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업이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나의 엄마,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라고 생각하게 되니 좀 더 알고 싶었고 궁금했다. 과연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갈까? 그 사람들에게 친구란,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나의 부모님에게 여쭙보는 건 뭔가... 부끄럽달까?) 자유롭게 가사를 쓰기 위해 개개인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며 깨달았다. 예술가로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 나이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연륜이 담긴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무작정 흥얼거리다 만들어진 ‘나에게 보내는 노래’는 여러 의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 깨달음과 질문은 항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도 배워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음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싱싱프로젝트]는 나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향할 곳은 어디인가? 에 대해서 :)

강사 함푸른

내 마음 드로잉

예술이 주는 위안. 처음 '심상 프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결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작가로서 저는 십여 년간 '내면초상화'라는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시민에게 받아, 즉석에서 간결한 그림과 글로 표현해드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와 위안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작가라고 해도, 매번 멋지고 감동적인 작품을 즉석에서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그림이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면초상화는 그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술교육에 몸 담게 되었을 때 위의 깨달음은 자연스레 수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무작정 돌아보자고 마음먹으면 불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예술은 그 불편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교육자로서의 저는 생활과 동떨어진 예술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구로서 예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심상 프로젝트에서도 예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먼저 '타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관계 속의 나', '과거의 나', '미래의 나' 등 주차별로 다각도에서 나를 굽어볼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을 배치했습니다. 재료도 참여자분들이 몰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이었지만, 참여자를 부평구에 살고 계신 50세 이상 분들을 참여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과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설다는 참여자분들을 보며 예술과 창작이 삶에 스며들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재단과 박현지 문예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사 **초선영**

벌써 수업 후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초선영 선생님과 함께한 5주 동안의 수업이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질 만큼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대신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그림과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 연령대 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과 일상, 생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과 순수함을 갖고 계시고, 꿈꿀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도리어 배웠습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이 수업이 끝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아름답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귀감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강사 **박정은**

04

싱싱프로젝트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후기

“기획자로서의 첫걸음”

‘신중년’은 50~64세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50+세대’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대에 갱년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 직장 생활에서 은퇴까지 사회적 변화, 자기표현 창구의 부재와 스트레스 등을 가지며 생애전환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생애전환기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필요한 예술적 욕구를 창조해 내며,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생애전환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실제 지역으로, 생활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자료와 좌담, 워크숍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의 방향성을 잡았다. 팀원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프로젝트의 든든한 뼈대를 만들었고, 함께해 주신 역량 있는 강사님들 덕분에 기획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탄생되었다.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코로나19 거리두기4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고민이 많았다.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아트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만나는 것이 기획의도에 적합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 애초에 준비했던 움직임 프로그램은 드로잉으로 장르변경을 하고, 음악교육은 커리큘럼 수정을 하며 비대면에 적합한 교육으로 재기획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이 50+세대의 참여자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 고민을 했다.

직접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화상회의프로그램 줌(zoom) 안내서를 만들고, 키트와 함께 상세한 안내문도 보내드렸다.

실제로 진행된 비대면 예술교육은 소회의실을 운영하며 참여자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해 한 기수에 15명 내외의 소수로 운영한 덕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대면이기에 쉽게 참여하고 마주보고 대화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며 비대면 수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싱싱 프로젝트를 통해”

참 대화가 없는 세상이다. 이야기 나눌 대상이 없을 수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수도, 이야기 나누기 어색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50+세대가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한 나를 찾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타인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길 바랐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벽을 허물길 바랐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나눌 소소한 이야깃거리가 되길 바랐다. 싱싱 프로젝트가 그들의 삶에 싱싱한 생기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

“근무를 마치며...”

꽤기 넘치게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내밀었던 첫 근무 날이 기억난다. 직접 기획을 해보니 무엇 하나 똑딱 만들어지는 것은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팀원들의 조언과 재단의 지원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싱싱 프로젝트>를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부평구문화재단과,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나 문화사업본부 지역문화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7개월간의 짧았던 근무를 마친다.

문화예술교육사 박현지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심심프로젝트

발행인	이영훈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편집인	고동희
기획총괄	김희영
기획	박현지
운영지원	안효정, 이슬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이 자료집은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심심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